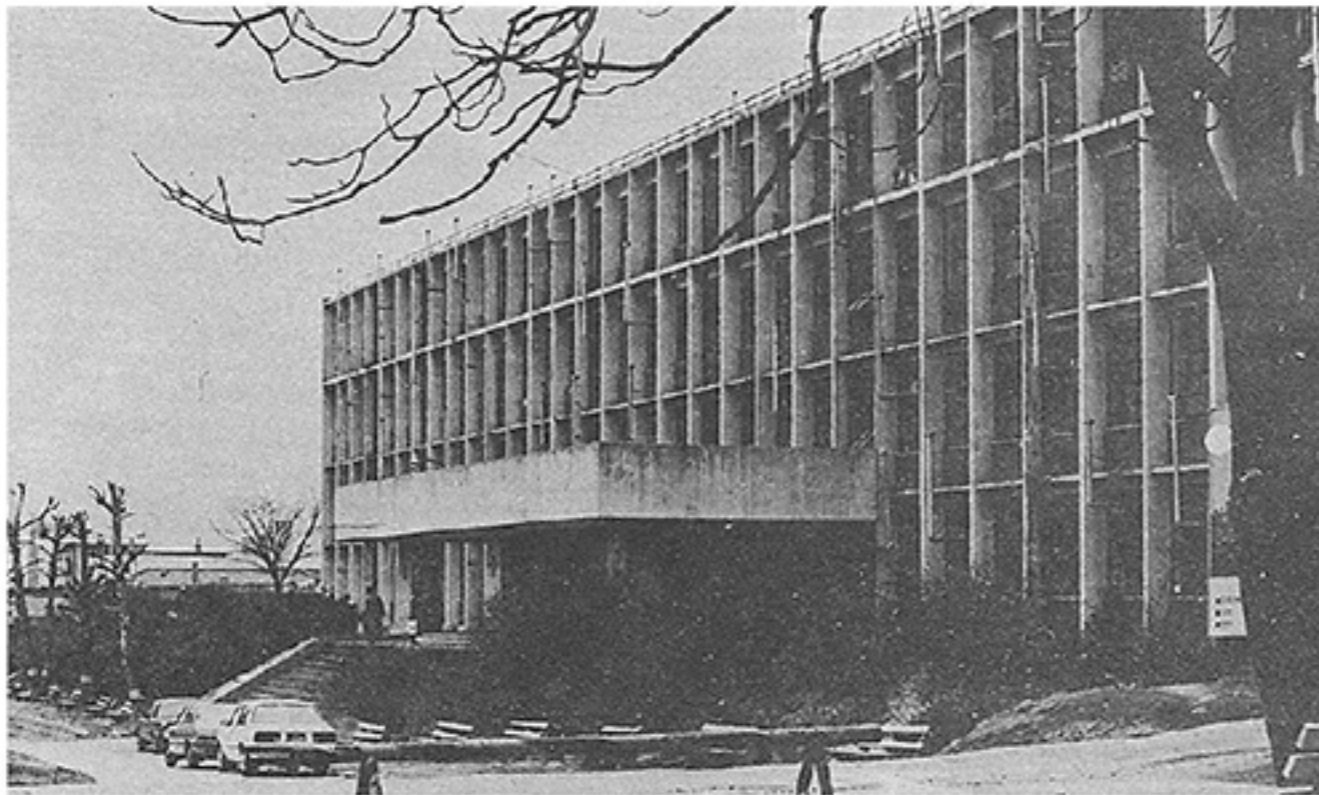


세계 건축사의 흐름과 경제성 반영한 신축건물



박동진 건축의 근대주의로의 전환을 보여주는 과학관(왼쪽사진)과 이공대학 본관. 석조고딕 모티브를 벗어나 근대주의 미학을 구현한 과학관은 1960년 완공돼 1968년부터 교양관으로 사용되다가 2002년 우당교양관 신축을 위해 철거됐다. 현재 제2공학관으로 사용되는 이공대학 본관(1964년 완공)은 다섯 줄의 수평 차양이 과학관 입면 각자의 수직성과 대비된다.

고려대학교의 건축물과 역사9

고딕 캠퍼스에 불어온 모더니즘의 바람: 1960년대 박동진의 근대주의 건축

1950년대 말까지도 석조고딕을 주조로 했던 고려대학교의 건축은 1960년대에 들어서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몇몇 건물에 짐짓 내비쳤던 모더니즘(modernism), 즉 근대주의의 기류가 이제는 또 다른 대세로서 캠퍼스에 번져갔기 때문이다.

건축에서 근대주의란, 단순히 말하면, 진보(progress)의 시대정신을 바탕으로 기능에 의거한 합리성과 미학을 추구했던 20세기 전반의 경향이라 요약할만하다. 그 결과 (내외부 공간의 융통성은 별개로 하더라도) 전통적 장식의 배제된 단순성, 평지붕 및 평활한 벽면, 창호 배열의 규칙성 등이 건물의 주요한 외적 특성으로 부각됐다. 1920년대 말 유럽에서 절정을 보인 근대주의 건축은, 1930년대 미국을 통해 국제주의 양식(The International Style)으로 축약되며 전 세계에 퍼진다.

특히 이러한 건축이 내포한 대량생산의 용이성은 이차세계대전 후의 복구사업에 적극 도입되는데, 이로써 세계 각지에 유사한 건축물을 양산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것은 1960년대 후반부터 대두된 포스트모던 건축가들에게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지로 전파된 근대건축은 그 지역의 전통과 만나 다양한 변이를 일으키며 새로운 가능성의 토양을 일군다.

박동진의 변모와 이정덕 교수 부임
1960년대 고려대학교에 근대주의 건축이 도래한 바는 크게 두 가지 상황과 맞물렸다.

하나는 건축가 박동진이 석조고딕 건축에서 탈피해 근대주의로 완전한 전환을 보였다는 점이다. 과학관(1959~60), 박물관(1961~62), 이공대학 본관(1957~64) 등이 그 예인데, 지난해에 서술했듯 이러한 전환은 외인교수 사택(1956)과 여학생회관(1958)에서 암시됐었다.

또 다른 하나는 1963년 12월에 신설된 건축공학과에 1965년 이정덕(1933~2014)이 첫 번째 전임교수로 부임한 사실이다. 그는 당시 서울대학교를 거쳐 미국 워싱턴주립대학교에서 막 건축석사를 마친 32세의 젊은이였다. 이때부터 고려대학교 건축사의 무대에서 60대 중반의 연로한 박동진(1899~1980)은 퇴장하고, 이정덕이 떠오른다. 그의 건축은 기본적으로 근대주의에 기반을 뒀는데, 이런 입장은 1960년대 말 그가 제안한 캠퍼스 전체의 마스터플랜에도 시사됐다. 다음 호에 살펴보겠지만, 여기서 그는 기존의 석조고딕 건축과 현대식 건축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 고심했음을 드러낸다. 비록 그가 계획한 개별 건축물은 1970년대에 들어서야 실현되지만, 1960년대 중반 이정덕의 등장은 고딕 캠퍼스에 불어온 모더니즘의 바람을 일신했다고 할 수 있다.

근대적 합리성 반영한 과학관

이 시기 근대주의 건축의 사례로 앞서 언급한 박동진의 과학관과 이공대학을 보자. 1960년 이학부를 위해 서관과 대강당의 남서편에 세워진 (그리고 1968년부터 교양관으로 명명됐고, 2002년 우당교양관 신축을 위해 철거

된) 과학관은 'T-자형 건물'로 불릴 만큼 그 평면형이 인상적이었다.

그러나 건축사적으로는, 이전의 건축물들과 달리 철근콘크리트 골조에 굳이 돌붙임을 하지 않고 평활한 면으로 처리한 점이나 평지붕이 더 주목받을 만하다. 역사주의의 굴레를 벗어난 근대주의의 표출이라 하겠다. 특히 정면 격자 루버의 규칙성, 간결성, 경쾌함은 국제주의 건축의 핵심적 성격이다.

이와 같이 박동진이 과학관에서 근대주의로 전환하게 된 요인은 여러 가지로 추론할 수 있다.



설계자를 알 수 없는 홍보관은 1968년에 완공됐다. 중앙 계단실 타워 양쪽으로 수직성과 수평성의 리듬이 공존한다.

우선 중심의 석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이 기본적 배경일 것이며, '과학관'이 상징하는 근대적 합리성 역시 중요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 건물이 동시에 들어서는 상황에서 공사비의 절감이야말로 결정적인 이유였을 텐데, 한 연구의 지적처럼(안창모, 1997) 피난시설 박동진이 미군 공병단의 일에 참여했던 경험 역시 영향을 미쳤

을 법하다.

수평차양 입면의 이공대 본관

과학관에 도입된 근대주의는 박물관을 거쳐 이공대학 본관(현재 제2공학관)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이어진다. 5층 철근콘크리트조의 이 건물은 평면이 애기능을 뒤로 감싸는 얇은 C-자 형태를 띠고 있으며, 중앙의 계단실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이다. 정면은 남남동을 향하며 남문과 조우하는데, 1983년 완공된 과학도서관과 북문이 함께 축을 이뤄 자연계 캠퍼스에 근엄한 위계를 부여했다. 말하자면 이공대학 본관의 배치와 구성은 상당한 고전적 권위를 품은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 자체를 조망컨대, 여기에는 근대주의

에서 흥미로운데, 개별적 두 리듬이 홍보관(1966~68) 정면에 함께 나타났음은 무척 흥미롭다. (설계자 불명의 홍보관은 중앙 계단실 타워 양쪽으로 수직성과 수평성이 공존하는 고려대학교 근대주의 건축의 중요 사례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공대학 본관 정면에 전체적으로 유리창이 한 겹 덧대져 원래의 디자인 의도가 희석되고 말았다.

근대미학과 경제성 추구

이와 같이 1960년대가 돼야 비로소 고려대학교 캠퍼스에 근대주의 건축이 출현한 상황은 세계적 흐름보다 한 세대 뒤늦은 것이다. 하지만 보성전문 이래 고려대학교 전체의 역사가 그랬듯, 우리나라의 수난과 특수했던 현실이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건축의 발전을 지연시켰음은 감안해야 할 바다.

그리고 고려대학교에 근대주의가 도래했다 하여 1960년대 이래의 모든 건물이 엄정한 근대주의 미학을 추구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사실상 근대주의로의 전환은 미학이 우선했다기보다 경제적 현실에 좌우된 경우가 많았고, 때로 임시방편의 조립식 건물이 들어서기도 했다. 게다가 고딕식탑의 영향력은 여전히 지속됐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근대주의 건축의 수용은 필연적 귀결이었음이 틀림없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기존의 콘텍스트와 융화시키는가에 있었다. 박동이 이정덕에게 넘겨진다.



김현섭(건축공92) 모교 건축학과 교수